



어린이 영어연극 '그림자 도둑(Shadow Thief)'

영어 배우고 연극도 보고

영어연극 '그림자 도둑' 28~30일 광산문화관

'영어도 배우고, 연극도 관람하고'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영어연극 '그림자 도둑(Shadow Thief)'이 28~30일(오후 2시·5시)까지 광산문화관에서 열린다.

지난 6월 호주 퀸즐랜드 공연예술센터가 주관하는 국제 어린이 공연축제인 '아우 오브 더 박스 페스티벌'에 초청돼 관심을 모았던 '그림자 도둑'은 주인공 소녀 애나가 자신이 잃어버린 그림자를 찾아 나서는 모험을 그린 작품이다.

'그림자 도둑'은 '그림자'라는 친근하면서 흥미로운 소재를 첨단 영상기술을 통해 무대에서 재현해 냈으며 공연 중 배우들이 무대위에서 생생한 라이브 음악을 들려준다.

공연은 자작 없이 영어로 진행되며 중간중간 국의 흐름을 짚어주는 한국말 설명을 곁들여 어린이들을 이해를 돋운다. 풀 매튜스·레이철 맥나마라를 비롯, 박영희·이현실 등 한국 배우와 함께 출연한다.

36개월 이상 유아부터 관람할 수 있으며 전석 2만원. 문의 02-560-0996.

/김미온기자 mekim@kwangju.co.kr

조선대 미술대학총동문전 작품 공모

조선대학교 미술관이 '미술대학총동문전-걸어온 길 60년, 세대를 넘어 미래로' 특별전을 위해 작품을 공모한다.

이번 전시는 미술대학 개설 60주년을 기념해 열리며 참가를 희망하는 작가는 오는 28일까지 조선대 미술관 학예연구실에 출품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9월18일부터 열리는 전시 1부에서는 서양화, 동양화, 서예, 조각 등 미술학부 출신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되며, 2부 전시(10월7일)에는 디자인 학부 출신 작가들이 참여한다.

조선대학교 미술대학은 지난 1946년 조선대 개교와 동시에 문을 연 뒤 현재까지 2천여명의 미술인을 배출한 작가들의 산실이다. 문의 062-230-7832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한대수

이적

스윗 소로우



집시풍으로 되살아난 '임을 위한 행진곡'

'사랑도 평에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 뜨거운 맹세 둘지는 간데없고 깃발만 나누꺼~'

지난 1980년대 시위현장에서 빠지지 않았던 대표적인 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이 한국 포크록의 대부 한대수의 결절한 목소리로 새롭게 탄생했다. 뛰어넘지 않은 그의 음색에서 흘러 나오는 '임을 위한 행진곡'은 장중함을 넘어서 가슴 한켠에 뜨거운 무언가를 던진다. 가수 하립은 인도악기인 타름 등 다섯개의 외국악기로 염숙한 노래를 집시풍으로 각각 있게 풀어낸다.

한대수, 이적, 윈디 시티, 스윗 소로우, 하립, 전제덕, 나비효과 등 인기 가수 13명이 70~80년대 민중가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음반 '아가미'를 출시, 가요계 화제가 되고 있다.

이적 '불행이', 전제덕 '복마름으로', 나비효과 '불나비', 정재일 '영산강', 못 '민주-햇살', 민수연 '진달래' 등 총 13곡이 담겨있는 이 음반은 출시되자 마자 인터넷 음반판매 사이트 등에

70~80년대 민중가요 현대감각 리메이크 음반 '아가미' 화제

한대수·이적·스윗 소로우 등 참여…음반사이트 톱 10 진입

서 네티즌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음반·도서 판매 사이트인 알라딘(www.aladin.co.kr)의 판매 순위를 살펴보면 음반이 출시된 6월 4째 주 4위로 데뷔한 뒤 7월 4째 주인 현재까지 10위권 내의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SG워너비, 버즈, 백지영 등 텁 스타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요즘의 음반시장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하지만 음반의 면면을 뜯어보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전투적이고 쳐燹한 '민중 가요'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음반에 참여한 가수들의 개성이 그대로 담긴 전혀 새로운 노래가 탄생했기 때문이다.

드라마 '연애시대'의 배경음악으로 인기를 끌었던 그룹 스윗 소로우는 노래를 찾는 사람들(노찾사)의 '사랑 노래'를 세련된 아카펠라로 재구성했다. 윈디 시티는 '미칠 것 같은 이 세상'을 레게 스타일의 곡으로 바꾸어냈다. 원래의 침울한 분위기보다는 동화적이면서 이국적인 느낌이 강하다. 도저히 '민중 가요'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지만 원곡이 가지고 있는 가사나 정서, 메시지까지 훼손된 것은 아니다.

윈디 시티 멤버 김반장은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만큼 밝은 것은 없다"면서 "레게 음악이야말로 신과 자신의 영성, 그리고 자유와 해방에 대한 간망으로 계속 발전해온 음악"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문화네트워크 티팟(TEAPOT) 사무총장 지금씨의 기획으로 제작된 '아가미'는 386세대에게 익히 알려진 민중가요로 향수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친지끼리 심대위주의 음악에 친구처럼 음악시장에 '다육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주목받는다.

지 씨는 "민중가요라는 형식을 떠나 대중가요를 디아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10대 위주에 친구처럼 음반시장에서 젊은 세대와 구세대 간의 문화 혼연의 장을 형성하고, 이러한 작업이 연이어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앨범 제작인 아가미는 물고기와 숨을 쉬는 곳인 아카마에서 유래한 것, 민중가요가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숨통이었던 것처럼 현대에도 민중가요가 입에서 입으로 전하고 불리면서 노래가 숨쉬기를 바라는 마음의 표현이다. 시민문화네트워크는 '아가미' 앨범 수익의 전액을 문화운동에 기부할 예정이다.

/곽선정기자 ksj@kwangju.co.kr

호남 의병·우국지사 얼 되새긴다

'약무호남(若無湖南)' 展 20일부터 내달 8일까지 나인갤러리

국난극복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면서 의향(義鄉)의 전통을 세운 호남지역의 의병과 우국지사들의 얼을 되새기는 전시회가 마련됐다.

나인갤러리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미술로 만나는 '약무호남(若無湖南)'전을 연다. 이 전시에는 광주와 전·남북 작가 27명이 참여해 왜구들의 침략과 불의에 정면으로 맞섰던 선열들의 희생 정신을 새롭게 해석한 작품을 선보인다.

작품들은 임진왜란, 병자호란, 동학, 독립운동, 3·1 운동, 광주학생운동 등 역사의 한복판에서 고뇌했던 의병·지사들의 모습과 전투 현장을 생생하게 담고 있다.

특히 고령명 장군, 김현령 장군 등 영정으로만 그려졌던 우국지사들의 면모가 현대적 해석으로 화면에 담겼다.

특히 고령명 장군, 김현령 장군 등 영정으로만 그려졌던 우국지사들의 면모가 현대적 해석으로 화면에 담겼다.

여기에는 역사적 현장을 살리기 위해 각 지방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그 지역 출신 작가들이 직접 제작했다. 조선왕조실록을 전라에서 구한 '전주 내장산 보존 사건'은 전주 작가 조병철씨가 제작했으며, 최연소 독립운동가인 주재연 선생은 여수 출신 이민하씨가 붓을 잡았다.

목포의 4·8 만세운동과 신안 암태도 소작쟁의 사건은 목포 출신 정태관, 김호원씨가 화폭에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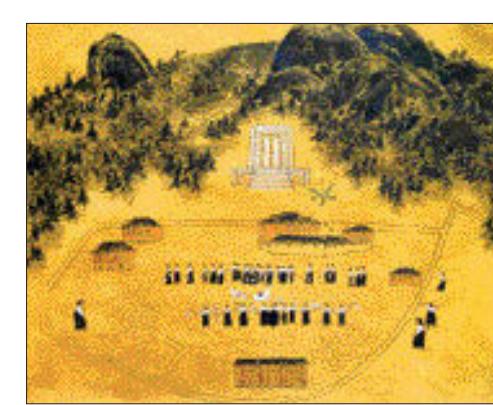
참여작가는 조근호, 고근호, 박수만, 조윤성, 허진, 최은태, 김홍근씨 등이며, 서양화, 한국화, 조각, 설치, 영상, 서예 등 미술 전 부문에 걸쳐 작품을 선보인다.

순회전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는 나인갤러리 전시에 이어 광주 5·18기념문화관(8월10일~24일), 목포 자연사박물관 전시실(8월29일~9월7일)에서도 열린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조근호 작 '총장공을 기리다'



정태관 작 '목포 4·8만세운동과 봉안전'

천혜선씨 가야금 독주회

20일 광주 빛고을 국악전수관

가야금 연주자 천혜선씨가 20일 오후7시 광주 빛고을 국악전수관에서 독주회를 갖는다.



천씨는 이번 연주회에서 가락의 짜임새가 치밀하고 구성미가 돋보이는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와 25현 가야금 2중주곡 '벳노래', 흥병기와 박범훈씨가 작곡한 '춘설'과 '새산조'를 들려준다.

전남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천씨는 현재 충남국악관현악단 상임단원으로 재직중이다.

장구와 25현가야금은 충남국악관현악단에 재직중인 이영선, 이승미 씨가 맡는다.

/김미온기자 mekim@kwangju.co.kr

현대공인중개사

☎ (062)371-1900, 011-638-2856
(사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급매물 상담 후 10일내 책임 중개

◀ 구합니다 ▶

① 광주시내 토지(면적이나 금액에 상관없음)

구함

② 기도원 부지 : 장성, 담양, 희순 2만평이상

가격은 싫어

③ 장성 진원면 도로에 접한 생산녹지-현금2억

④ 병원 신축부지 : 면적 가격은 물건 검토시 결정

◀ 팝니다 ▶

◆ 키센터부지

광산 우산동 대지 117평 평당 20만원 20m 도로변

◆ 가격부지

양진동 구획정리지구 아파트정문앞 161평 평당 450만원

◆ 용도부동

40m 도로 계획선에 접 770평 평당 55만원

◆ 산구 신축동

1,900평 2차선 도로에 접 평당 20만원

◆ 지하철 시청역부근

미륵동 574평 평당 400만원 40m 도로 계획선에 저촉

◆ 컨벤션센터 부근 토지

미륵동 화제체단지 908평 상담후 결정

21세기부동산컨설팅(주)

투자의 길을 아는 사람들!! ☎ (011) 612-3421

경매 투자자 투자상담 환영!!

법원경매·공예에 투자하여

부동산 절반값에 산다!!

* 경매나찰시 임차료 수익이

기대되는 물건 상당환영!!

1. 첨단지구 월세동 삼성지역내 5층

건물 대지 181평 준공14년 건물

임대 25억/최저가 12억

2. 종합동 2층 고급주택 대지 211평

2024년 준공된 건물 임대가 5억

5천/최저가 25억

3. 화정동 티아날ーム면 현재 짐여식

장으로 윤영중원 7층건물 대지 300

평 임대 50억/최저가 15억

4. 춘주지역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부지 1,000평 광주대입구 남구 진

월동 글로벌파크원 평당 300만원

5. 신도동 10층 아파트 100평

임대 15억/최저가 8억

6. 신도동 10층 아파트 100평

임대 15억/최저가 8억

7. 신도동 10층 아파트 100평

임대 15억/최저가 8억

8. 신도동 10층 아파트 100평

임대 15억/최저가 8억

<p